

독자와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 행복했어요”

이들과 함께 한 재활용 장터 '보물섬'

언론사에서 기증받은 책 판매 이웃돕기 성금으로 처음에 주저하던 아이들도 '특별한 경험'에 신 나

넷째 주 토요일,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볼토'이므로 아이들 성화에 밖으로 나가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하는 날이라 분주히 움직인다. 매일 돌·넷째 토요일에 상무지구 무각사 주차장에서 열리는 재활용 나눔장터에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평소 휴무 토요일과는 다르게 아침부터 부산을 떨어, 애들을 데리고 갔다. 행사장을 찾아가는 길은 따뜻한 가을 날씨와 나뭇잎은 오색으로 물들어 반기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었다. 오전 9시부터 나눔의 장터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목 좋은 곳에 내 물건을 진열해 알리고 싶어하는 아줌마, “아디 물건들 구경 한번 해 볼까”하고 나오신 노부부, 아이들에게 나누고 아껴 쓰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어 장터에 참여한 가족, 모두들 신이 난 표정이었다. 나도 책을 진열해 책의 주인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 오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 진열을 애들과 함께했다. 책 진열을 하면서 이 많은 책이 주인을 찾아갈까? 하는 의구심과 어차피 남은 책은 아름다운가게에 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책 진열을 했는데, 이젠 웬걸 책 진열을 다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와 책이다. 이 책 얼마예요?”, 새 책인데, 정말 천원씩 해요” 한 마디씩 묻기 시작했다. 처음과는 달리 신나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처음에 진열해 판매하라고 할 때는 마치 못해 하는 눈치였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까지 하는 것이었다. 나도 신이 났고 애들 또한 신이 났다. 책을 사고 안 사고 간에 사람들이 물러와 책 구경을 하는 것이 참 좋았다. 이 책 저 책을 펼쳐며 고르는 할아버지, 어떤 책이 좋을지 하면서, 우리 손자에게 책 한 권 사 주어야지 하면서 애들 책을 열심히 찾는 할머니, 책



지난 24일 열린 재활용장터 '보물섬' 행사에서 지역신문사에서 기증한 책을 판매하는 부스가 인기를 끌었다.

을 골라 놓고 다른데 구경하고 올테니가 맡아달라는 아줌마, 서로 책을 고르면서 이 책 좋겠는데요 하는 모습 등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소통의 장이 되어 가고 있었다. 재활용 장터 '보물섬'을 제안하신 무각사 청학 스님도 오셔서, 책을 사시면서 “장터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사람과 함께, 책 속에 담긴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들로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사회를 이루어 가길 바란다”고 좋은 말씀을 주셨다. 또한 전주언 서구청장은 무각사에서 애들 책을 열심히 찾는 할머니, 책

들에게 아름다운 시구를 선사했으면 좋겠다며 시집 20권을 사주었다. 지역 언론사에서 기증받은 책 20여 권은 아낌없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장터에서 판매되었다. 이날 판매된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 우리 모두는 보람있게 '나눔의 장터'에서 한나절을 보냈으며 “다음에 또 오고 장난감, 신발 등을 가지고 참여하자”고 의기투합했다. ▲손은영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 직원>

클릭! 맛집



백수해안도로 따라 떠나는 가을 '미각 여행'

“웰빙 생선의 비밀은 소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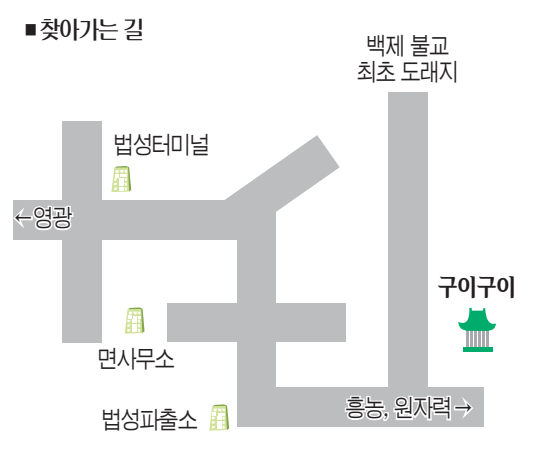
■영광 생선구이전문점 '구이구이'

영광군 백수해안도로에서는 토라진 연도도 금방 마음을 풀 것 같다. 영광군 범성면 진내리 17번지 생선구이전문점 '구이구이'(업주 박운순)는 백수해안도로에서 20여분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았다. 20여년간 수산물 유통을 해온 주인장이 직접 선별한 생선을 맛있게 구워낸다. 생선이 신선해 붉게 노을 든 칠산 바다 내음도 상위에 함께 오른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껍질 사이로 육즙이 끓어 오르며 풍기는 '잘 구워진 생선 냄새'는 식욕을 불러일으킨다. 굴비, 갈치, 고등어, 삼치, 풍치, 가자미, 서대를 함께 구워준다. 생선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DHA, 단백질, 비타민)이 많아 여행의 피로를 푸는데 그만이다. 맛의 비밀은 소금이다. 바닷가 근처 생선이야 거기서 거기지만, 구이의 맛을 내는 소금은 같을 수 없다.

이 집은 영광군 범성면에서 나는 소금만을 골라 2년을 묵혀둔다. 간수를 빼기 위해서다. 2년의 세월을 견딘 소금은 쓴맛보다는 고소한 맛이 더 난다. 간잡이의 손을 거친 안동간고등어의 맛이 남다른데 집 생선의 맛도 소금에서 나온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부드러운 생선 속살은 부드럽게 녹고, 소금은 입안에 고소한 여운을 남긴다. 오븐에 구워, 생선 껍질을 적당히 태우는 것도 맛의 비결이다. 영광 굴비, 묵포 먹갈치, 여수 서대, 지역 대표들이 다 모였으니, 골라 먹는 재미도 솔솔하다. 매일 버무리는 김치, 오이소박이, 나박김치, 도라지 나물 등 밑반찬도 정갈하다. 어른 4명이 배ભ러 먹을 수 있는 생선모듬구이 4만원. 참숯으로 구워오는 양념 돼지고기도 별미다. 사과와 배를 갈아 고추장에 함께 비벼 양념을 하는데, 참숯의 향기가 고소란히 고기에 남아 있고 씹는 맛도 좋다. 돼지화로양념구이 8천원. 문의 061-356-8592.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돼지화로 양념구이>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광주도시철도공사·메트로열린도서관

시민과 함께 한 '책문화 큰 잔치' 행복

독서의 계절을 맞아 28일 광주지하철 남광주역에서는 풍성한 책문화큰 잔치가 열렸다.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열린도서관(관장 박현숙)가 공동으로 준비한 이날 책잔치에는 시민들이 소장한 도서를 1대 1로 교환하는 장이 펼쳐졌으며 '알뜰도서관교환', 충장서점·엠마오서점 등 대형서점이 참여하는 '도서할인판매전'도 열렸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페이스 페인팅, 종이접기, 노래 놀이마당, 풍선아트, 짚풀 공예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했다. 한편 남광주역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공사직원들과 시민들로부터 도서를 기부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그 수익금을 결산하여 '아프리카 샘물 파주기 운동본부'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1월 광주교통문화사랑실천봉사단과 함께 전국 최초의 지하철 도서관인 메트로열린도서관을 개관해 총 8천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메트로열린도서관 박현숙 관장은



지난 28일 광주지하철 남광주역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메트로열린도서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도서확보 및 책문화큰잔치가 열렸다.

“책문화큰잔치를 통해 시민들이 책을 보다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지식정보와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근<광주교통문화사랑실천봉사단 대표>

대인동삼일부동산
(대표)223-1140, 5210
(문의)223-1140, 5210
(광주)대인동 삼일부동산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표)383-5221
(문의)383-5221
(상무대 정문)

금호부동산컨설턴트
☎224-5959/010-2831-1733
광주 전남권
부동산 10-35% 할인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금 매물 중개 전문)

경매전문회사
호남경매컨설팅
H.P 010-5616-8988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